

해외 스마트관광 추진 우수사례 심화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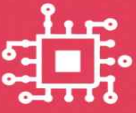
(2022.12.15, 파리지사)

심화보고서 개요

- 주 제 : 2022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 선정도시
(프랑스 보르도/스페인 발렌시아 중심) 스마트관광 추진 사례조사
- 내 용 :
 1.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 배경 및 현황
 2. 프랑스 보르도(Bordeaux) 스마트관광도시 추진현황
 3.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 스마트관광도시 추진현황
 4. 유럽 주요 스마트관광도시 사례 비교 및 분석
 5. 시사점 및 맺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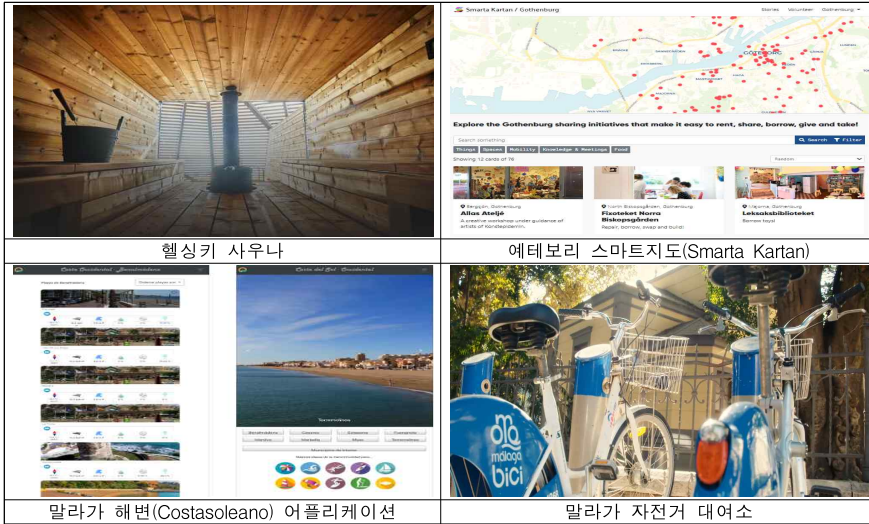
1.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 배경 및 현황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2019년부터 유럽 스마트 관광수도(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 조성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접근성, 디지털화, 문화유산 및 창의성** 네 가지 범주를 기준으로 매년 유럽 내 도시를 선정함. 이러한 변화의 전제조건이자 핵심 요소인 거버넌스와 기업, 지방정부, 관광객 및 거주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가 선정된다는 측면에서 관광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8년 유럽위원회(EC)는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유럽연합 전역에서 총 38개 도시가 참가, 2019년 핀란드의 헬싱키, 프랑스 리옹, 덴마크 코펜하겐이 첫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스웨덴의 예테보리, 스페인 말라가가 선정됨.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문(하단 표 참고)을 고려해 스마트 관광도시를 선정함.

 ACCESSIBILITY	 SUSTAINABILITY	 DIGITALISATION	 CULTURAL HERITAGE & CREATIVITY
접근성	지속가능성	디지털화	문화유산 및 창의성
· 강력한 교통시스템, 교통수단 및 다국어 서비스 확충 · 연령, 문화적 배경, 신체적 장애에 상관 없이 폭넓은 접근 허용	· 도시의 천연자원 관리 및 보호 · 지역사회 및 지역환경과 융합하는 조화로운 관광지 조성	· ICT 기반 솔루션 및 디지털 도구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관광정보의 디지털 액세스 방식 개발	· 지역 잠재성 및 창의성 구현을 기반으로 한 관광목적지로서의 문화유산 보호

-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역대 도시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4가지 부문을 잘 살린 도시를 유럽 스마트 관광수도로 선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일례로 2019년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헬싱키(Helsinki)는 고유의 사우나 문화를 재창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헬싱키 내 호텔 객실(75%)의 친환경 인증 획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2009년부터 정부 공공 데이터 개방 및 지역관광 정보 플랫폼(MyHelsinki.fi) 개설을 통해 지역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또한 2020년 스마트 관광도시 중 하나인 스웨덴의 예테보리(Göteborg)는 도심 내 물품, 장소 등의 임대, 교환, 공유 기능을 통합해 시민참여가 가능한 스마트 지도(Smarta Kartan)를 출시함. 또한 폐기물 재활용 열에 기반을 둔 지역난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호텔의 92%, 회의 시설의 100%가 환경 인증을 획득하여 도심 내 이벤트 개최로 인한 잠재적인 환경 영향을 예측할 수 있게 됨.
- 이 외에도 2020년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스페인 말라가(Málaga)는 도심 내 공공 LED 조명 설치, 총 40km가 넘는 자전거 도로 인프라 확충 및 20개 넘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Costasoleando)을 활용해 말라가 해

변의 관광객 점유율, 기온, 수온, 풍속, 풍향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해변의 인구 과밀현상을 피할 수 있음. 이 외에도 공원과 정원의 물을 절약을 위한 스마트 급수 시스템 설치, 꽃가루 및 대기 오염도 모니터링 계획(Air Quality Sectoral Plan) 등으로 관광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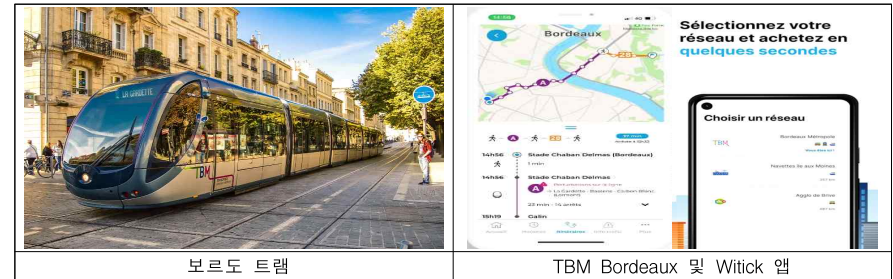
- 관광목적지와 기술부문의 접합 방식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으로 개발·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 내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주안점**을 두고 환경과 개발이 공존 가능한 방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추세임.

2. 프랑스 보르도(Bordeaux) 스마트 관광 추진 현황

- 2022년 스마트 관광수도(2022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로 선정된 프랑스 도시 보르도(Bordeaux)는 700개의 고성(古城)을 문화재로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와인 생산지이자 347개의 문화유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지역(1,810 헥타르)이 유네스코(UNESCO)에 등록된 도시임. 보르도는 와인관광, 문화유산, 자연, 강변

레저활동, 보르도 근교 투어 등 다양한 부문으로 나누어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음.

- **(접근성)** 보르도 대중교통은 트램, 버스, 수상 보트,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기차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를 설치해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신규 트램 노선 및 수상셔틀보트 구축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시킴. 동 지역 교통 안내 어플리케이션 TBM Bordeaux와 교통 티켓 구매 어플리케이션 Witick을 연계해 블루투스로 티켓 인식 및 승인이 가능하며, 프랑스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교통 카드 배송 오류 문제 등을 방지하고 구입 절차를 단순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임.



또한 장애인을 위해 트램 내 대형 미닫이 문, 휠체어 좌석 등을 설치하거나 박물관, 레스토랑, 영화관, 스포츠 시설 등에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좌석 제공으로 신체적·물리적 제약 조건을 최대한 줄여 관광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킴. 특히 앞서 언급한 두 어플리케이션은 장애인의 교통 티켓 구매 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이동목적지까지의 경로 및 교통수단 검색 기능으로 보다 수월한 길 찾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현재 보르도 시민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앱 사용과 관하여 4.8의 평점(5점 만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보르도는 옛 군대 막사 시설을 재활용해 친환경적인 도시 공동체 문화 교류의 장소 ‘다윈 에코시스템(Darwin Ecosystem)’을 조

성함. 스트리트 아트 예술가의 작품 뿐만 아니라 800m2 규모의 골동품 시장을 구경할 수 있고 동시에 스케이트, 보드, BMX자전거(산악자전거) 등 도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또한 동 공간은 채소, 꽃, 작물을 재배하는 도심농업공간을 마련해 농업이 갖는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 순화, 정서함양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여 도시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나가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유기농 레스토랑 및 비스트로(Bistro)를 운영하여 지역 농식품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퇴비로 활용하는 Les Detrivores 협회와 협력해 쓰레기 배출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 외에도 해마다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콘서트, 컨퍼런스 등을 기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다윈 에코시스템(Darwin Ecosystem)

한편, 보르도 시는 프랑스산악연맹(la Fédération Française de Randonnée Pédestre)과 협력해 가이드북 시리즈 GR® Bordeaux Metropole을 개발, 보르도 주변 외곽 둘레길 및 주요 자연환경과 도심 공원을 연결해 17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160km의 장거리 하이킹 루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시행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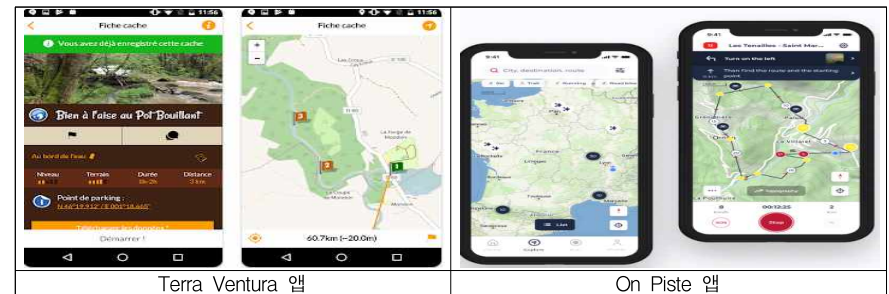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지도 및 경로를 공개하여 보르도 도심 및 인근 주변지역까지 연계해 방문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외곽 곳곳에 배치된 교외 쉼터(Refuges périurbains, 산악 대피소와 비슷한 기능으로 주변 시설 탐방 및 임시 숙박용 예술 구조물)를 통해 관광객에게 지역자연환경을 재발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GR® Bordeaux Metropole

예술 구조물 숙박시설

- **(디지털화)** 보르도가 위치한 프랑스 남서쪽 누벨 아키텐 지역(Nouvelle-Aquitaine)은 민간기업 Terra Ventura과 제휴를 맺고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보르도 인근 지역 산책로(Lormont, Gradignan, Cenon, Floirac 등)를 따라 보물찾기 형식의 미션수행, 퀴즈풀기 또는 마스코트 찾기 등의 각 경로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프랑스어,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4가지 언어로 이용가능하며 자녀와 여행을 하는 관광객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On Piste는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의 스포츠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역 자연을 활용한 18개의 루트 안내, 코스 난이도, 속도, 운동강도, 악천후로 인한 진입금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자연환경을 즐기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음.



Terra Ventura 앱

On Piste 앱

- **(지역 문화유산)** 보르도는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만큼 와인 관광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 문화재 및 자연을 활용,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실제 보르도 지역 포도밭 면적의 65%가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으며 특히 살충제 사용감소를 위한 연구에 120만 유로(한화 약 17억)를 투자하는 등 **지속가능한 와인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2016년에 건설된 와인 박물관(Cite du Vin)은 와인 역사, 전 세계 와인, 프랑스 포도원, 와인 아틀리에, 시음과 시식까지 와인과 관련한 모든 **몰입형 다중감각체험 전시**로 영상, 소리, 시향, 시음 등 기술과 체험이 결합한 독특한 전시를 통해 와인으로 대표되는 지역적 특색을 알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 박물관 설계로 박물관의 에너지 소비의 70%가 친환경 및 지역 에너지로 충당되며 통풍 및 환기, 열 배출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에어컨 사용 비중을 줄이고 있음.



와인 박물관(Cite du v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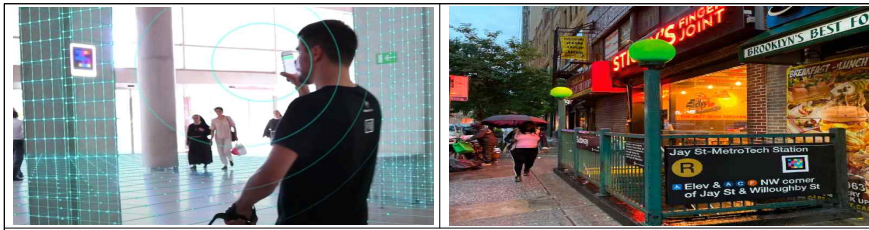
몰입형 다중감각체험 전시

3.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 스마트 관광도시 추진현황

- 2022년 스마트 관광수도(2022 European Capitals of Smart Tourism)로 선정된 또 하나의 도시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는 21년 기준 인구 80만 명으로 스페인의 3번째 도시이자 아방가르드한 건축물, 예술과 과학의 도시로 불림. 또한 스페인의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고야 영화제(Goyas Awards) 개최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매년 2,200만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음.

- **(접근성)** 발렌시아 시는 1996년 설립된 스페인 비영리 장애인 단체 PREDIF (Representative Platform for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와 긴밀히 협력하여 장애인 관광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PREDIF는 스페인 내 10만 명 이상 장애인을 대표해 장애인 대상 관광 접근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동 단체는 장애인을 위한 **관광 안내플랫폼 TUR4all**을 개설하여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영어 4가지 언어로 호텔, 레스토랑, 박물관 등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발렌시아 도심 내 52개 관광지 및 관광업체가 PREDIF의 관광 프로그램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동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지 및 관광업체 수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임. 장애인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 휠체어 등을 배려한 이동수단, 편의시설 구축 및 외국어 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한 관광지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대표적으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 기기에 자동으로 시각적 알람이 전송되는 Visualfy 시스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심 내 관광지 및 대중교통 등에 NaviLens 시스템을 설치하여 원거리에서도 쉽게 인식이 가능한 QR코드로 연동되는 음성안내 서비스 제공 및 점자표기 등을 운영하고 있음. 이 외에도 LGBTIQ+ 성소수자들을 위한 다수 행사 마련, 2026년 제 8회 게이 게임(Gay game) 유치로 포용적인 도시 이미지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시각장애인용 NavILens QR코드 활용

- **(지속가능성)** 발렌시아는 UN 내 국제전기통신연합기구(ITU)와 국제표준화기구(ISO) 두 기관에서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도시로 인증 받은 첫 도시임. 전 유럽 국가들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만큼 발렌시아는 2030년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탄소배출 감소, 전기 자동차 사용 장려, 에너지 효율성 개선, 유기농 지역 농수산 식품 소비 및 문화유산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 측정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계획(Sustainable Action Plans)’을 실행하고 있음.

특히 발렌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농업지역 L'Horta de Valencia는 약 28km²의 넓은 부지에서 13세기 이슬람 문화권의 지배를 받는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독특한 관개 시스템을 이용해 오렌지, 토마토, 올리브 나무, 양파, 감자, 호박 등 총 50여 가지의 농작물을 한 곳에서 재배하며 지역 종자, 품종 보호 및 농업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있음. 이러한 독특한 시스템은 UN식량농업기구(FAO)에서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로 등록되었으며 지역 레스토랑 업계 사람들이 거래하는 Mercavalència 시장에서 직접 판매 또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도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L'Horta de Valencia 농업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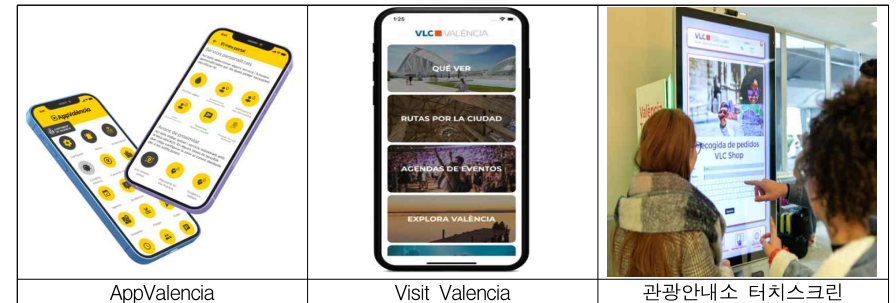


Mercavalència 시장

- **(디지털화)** 발렌시아 시는 어플리케이션 앱발렌시아(‘AppValencia’)를 출시하여 발렌시아 관광정보(위치 정보 및 행사일정, 즐길 거리, 박물관 등), 맞춤형 알림 서비스(구간별 위급상황 및 도로 공사 등), 시내 대기 오염 측정 데이터 열람, 온라인 행정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구역 안내, 위급상황 시 연락사무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도심 시스템 및 장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VCLi 플랫폼을 개설했고, 스마트 중앙통제시스템으로 도심 내 가로등 조명 전기 소비량 관측, 도심 쓰레기 및 청소 데이터 수집, 버스 및 택시 승하차 정류장, 도심 주차장 등 차량 점유 공간 확인 시스템 설치, 40여개 시내 버스 대상 도심 온도, 습도 및 대기 질 측정 장치 설치 등 실시간으로 도시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이 외에도 관광 안내소는 앱 Visit Valencia 활용으로 관광지, 숙박, 음식, 즐길거리 등을 안내하고 종이 티켓 및 모든 가이드를 다운로드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종이 사용을 줄이고 이동에 간편하여 관광객의 실제 활용도를 높임. 또한 메신저 앱(Whatsapp)을 활용해 실시간 채팅으로 관광지 정보를 문의할 수 있으며, 관광 안내소에서 는 관광지 정보 검색 및 다운로드를 위해 터치스크린을 활용하고 있음.



AppValencia

Visit Valencia

관광안내소 터치스크린

- **(문화유산 및 창의성)** 발렌시아는 유네스코(UNESCO) 중요문화재로 등록된 지역문화 3가지를 홍보해 지역 관광 이미지 구축에 힘쓰고 있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독특한 고딕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실크무역거래소(Lonja de la seda), 건조한 기후를 가진 지역적 특성상 관개용수가 전통적으로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발렌시아 대성당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개적으로 열리는 농업 관개용수 사용 회의를 유네스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해 지역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또한 매년 3월에 개최되는 거대한 인형 구조물을 즐길 수 있는 라스 파야스(Las Fallas) 축제 또한 지역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발렌시아 대표 지역문화를 나타내는 상징물로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관개용수 사용 공개 회의

라스 파야스(Las Fallas)

4. 유럽 주요 스마트 관광 도시 사례 비교 및 분석

- 유럽의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역대 도시들은 특히 관광지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짐. 스웨덴, 헬싱키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호텔, 숙박 시설의 환경성 인증 획득, 스페인 말라가의 공공 LED 가로등 설치, 해변 관리 시스템, 대기 오염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해 어플리케이션 활용 및 공공 정보 개방으로 대중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된 프랑스 보르도(Bordeaux)와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는 무장애 관광(모두에게 불편함·장벽 없는 관광)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장애인 및 성소수자 등 사회배려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이 두드러짐. 자전거, 킥보드, 트램 등 친

환경 대중교통 시설로 물리적인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특히 스페인 발렌시아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화 교통안내 시스템, 시각 장애인을 위한 QR코드 음성 안내 프로그램 및 점자 표기, 성소수자를 위한 이벤트 유치 등 사회 소수 구성원을 위한 배려가 돋보임.

- 또한 공통적으로 도심과 어우러지는 농업 공간을 조성해 지역 상권(레스토랑, 시장 등)과 바로 연결하여 지역 농산품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뿐만 아니라 농업 공간을 또 하나의 관광지로 활용, 친환경적인 관광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함. 특히 스페인 발렌시아의 경우 지역 농산물 재배 방법에 있어서 전통 농업 문화를 살려 UN 식량농업 기구에서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으로 인정받은 독특한 이력으로 문화·생태적인 가치를 높임.
- 프랑스 보르도의 경우, 옛 군대 막사 시설을 재활용한 '다윈 에코 시스템(Darwin Ecosysteme)'은 시민들이 만남과 문화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스케이트·보드 공간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인 도심 농업 공간에 지역 경제 소비로 직결되도록 유기농 레스토랑, 비스트로, 카페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디지털 활용 및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임. 프랑스 보르도의 경우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스포츠, 도심 탐방 등 특정 주제 및 수요층에 맞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내 관광 스팟을 재발견하는 재미를 부각시켰음. 스페인 발렌시아는 행정 전산화 서비스 또는 유럽에서 찾기 힘들었던 무료 와이파이 구역 제공, 터치스크린 관광안내서비스 등을 통해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높임. 또한 2019년 스마트 관광도시 중 하나인 헬싱키의 경우처럼, 생활용품 및 공간 등을 대여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지도를 개설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음.
- 프랑스 보르도의 경우 전통적으로 와인 생산지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와인과 관련한 모든 체험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징적인

박물관을 설립하여, 프랑스를 넘어 전 세계 와인의 역사 및 생산지 소개, 시음이 가능한 레스토랑, 와인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지역 고유의 건조한 기후를 대비하기 위한 관개수로 공개 사용회의 문화, 도심 곳곳에 대형 구조물을 세워 즐기는 라스 파야스 축제가 있으며, 핀란드 헬싱키는 추운 기후에서 두드러지는 사우나 문화 등을 살려 지역 전통 문화 콘텐츠 개발 및 관광 이미지 구축에 기여함.

	프랑스 보르도	스페인 발렌시아	한국 주요도시
접근성	- 친환경 교통수단(자전거, 전동킥보드, 수상택시, 트램 노선) 구축 - 휠체어 이용자 및 장애인 위한 대중교통수단 인프라 보완 및 교통권 구입 어플리케이션(Witick) 개발	- 장애인 비영리단체 PREDIF 협력 - 청각 장애 관광객을 위한 Visually 시스템 - 시각장애 관광객을 위한 음성 안내 시스템 NaviLens, 점자표기 운영 등 - 성소수자 LGBTQ+ 위한 행사·관광 프로그램 마련	- (대전) 자전거 ‘타슈’ - (서울) 무장애관광을 위한 다누림 관광센터 - (여수) 해상케이블카 - (대구) 모노레일 개발계획 - (울산) 수소전기트램 개통(2027) 예정
지속가능성	- 옛 군대 막사 시설 재활용 (Darwin Ecosystem) 및 도심 농업 공간 조성, 지역 생산 농식품 활용한 레스토랑 운영 -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 (Les Detrivores)활용 제로 웨이스트 활성화	- UN 세계중요농업 유산시스템 선정 (Horta de Valencia) - 지역 유기농식품 판매 시장 연결 - 도심 내 탄소축적 및 관리	- DMZ 생태관광 유네스코 (UNESCO)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 추진 등
디지털화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 (Terra Ventura, On piste) - 프랑스 산악연맹 협력 가이드북 및 온라인 지도 개발	- AppValencia/ VisitValencia 어플리케이션 개발 - 터치스크린, 홍보간행물 디지털화	- 관광공사 앱 대한민국구석구석(내국인)/ VisitKorea 3.0(외국인)/ 스마트투어가이드 오디(Odii) - 서울 시내 관광안내 터치스크린 설치
지역문화 유산 및 창의성	- 와인생산 지역 특성 활용 와인 박물관 설립 - 와인 생산지 친환경 인증 마크 획득	- 관개수로 공개논의 전통문화 - 라스 파야스 축제 활성화	-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 (경주) 황리단길 - (남원) 광한루 전통문화체험지구 - (하동) 화개장터

5. 시사점 및 맺는말

- 2022년 처음으로 한국에서도 울산, 청주, 경주, 남원, 양양, 하동 등 스마트 관광도시를 선정해 세부 계획을 진행 중이며, 주로 관광지에 ICT 기술을 접목해 교통·숙박·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적 접근 및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유럽의 스마트관광 도시 선정기준 및 예시는 한국의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을 위한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유럽의 스마트 관광도시 선정 기준에 따른 한국 주요 관광도시를 살펴보면 공공 자전거 대여 서비스 ‘타슈(대전)’, 무장애 관광을 위한 ‘다누림 관광센터(서울)’ 등을 운영하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고, 울산은 민간기업과 협력해 향후 친환경 교통수단을 고려한 수소전기트램을 개통할 계획에 있음.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 교통안내 서비스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는 만큼, 유럽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서도 사회 전 계층 대상의 질적 접근성 강화를 위한 훌륭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유럽 주요 국가들은 옛 건물을 활용하거나 고유의 전통 농업 문화를 발전시켜 관광지로서의 농업공간을 조성해 친환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생산된 농산품을 지역 상권과 연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생의 구조를 갖추고 있음. 대부분의 자연 친화적인 관광은 접근이 어렵거나 지역 경제와 연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유럽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국립공원, 습지, 동굴, 철새 도래지 등의 자연 친화지역과 인근 관광지의 지역적 문화·전통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임. 이미 국내에 개발된 내·외국인 용 앱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Korea 3.0 및 스마트투어가이드 오디(Odii) 등에 사회적 소수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비스를 ICT 기술과 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면 외래객 유치뿐만 아니라 스마트 관광지로서의 기술

인프라 구축 및 인지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유럽연합위원회, 보르도 및 발렌시아 관광사무소 사이트, 현지 매체 관련 기사,
국내언론 등 종합